

3.1운동과 독립선언서에 투영된 다시개벽의 꿈

박 길 수 (천도교중앙도서관 관장)

I. 들어가는 말 / 1

II. 본론 / 2

1. 3.1운동은 모심의 혁명-동귀일체 운동이다 / 2
 - 1) 사회적 성화로서의 모심의 혁명 / 2
 - 2) 해방-고비원주 운동 / 3
 - 3) 보국안민-다시개벽 운동 / 4
2. 3.1운동은 종교운동이다 / 6
 - 1) 종교인들이 앞장선 운동 / 6
 - 2) 기도운동이자 각성 운동 / 7
 - 3) 삼위일체 운동 / 8
 - 4) 청년(신세대신시대) 운동 / 9
3.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책임하에 작성 배포되었다 / 9
 - 1) 누가 썼는가 / 10
 - 2) 작성과 배포 / 10
 - 3) 조선독립신문, 또 하나의 독립선언서 / 12
4. 종교인의 '상상력'으로 독립선언서를 읽자 / 13
 - 1) '선언'으로서 완성되는 글, 기도문 / 13
 - 2) 민족의 주문(呪文) / 14
 - 3) 믿고 정성들이는 글 / 15
 - 4) 자기 성찰과 그리고 용서하는 글 / 15
 - 5) 서로 살리는 유무상자(有無相資)의 글 / 16
 - 6) 꿈(希望祈願)의 기록 / 17
 - 7) 순교의 서(書)이며, 부활의 약속(約束) / 18
 - 8)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생명의 서(書) / 19
5. 독립선언서는 한민족의 대헌장(大憲章)이다 / 20
 - 1) 오래된 미래의 비결 / 20
 - 2) 영성적·개혁적·자주적 근대 운동 출사표 / 22

III. 나가는 말 / 23

1. 3.1운동 100년 - 서세동점 100년 / 23
2. 게임체인저의 소명 / 24
3. 다시, 다시개벽의 꿈 / 25

1. 들어가는 말

“3.1운동¹⁾ 100주년에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문명 세계를 이룩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씌어졌다. 그리고 이 물음은 기미년(1919)의 3.1운동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첫째,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주관하고 전 민족이 참여한 운동이었다.

둘째, 3.1운동은 자주독립을 넘어 문명 세계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다.

셋째, 3.1운동은 각성/학습의 훈련장이자 기도운동(종교운동)이었다.

넷째, 3.1운동의 독립선언서는 민족의 기도문이고 민족의 헌장이었다.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선창(先唱)하고 선도(善導)하고 선구(先驅) 먼저 달려감)하여 새로운 세계와 문명에 대한 비전을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종교운동이라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그 길 위에서 기미년의 3.1운동의 준비과정과 기미독립선언서를 둘러싼 익숙하고도 ‘구구(區區)’한 해석에서 한번쯤은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과 진심어린 덕담으로 그때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보자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종교적) 상상력과 사랑²⁾이다. 3.1운동의 민족대표들은 종교적인 상상력과 심성을 기반으로 종교적인 방식으로 3.1운동을 기획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선도하였다. 3.1운동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적 자산이 되고,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혁명적 유산이 된 것은 바로 그 덕분이다. 3.1운동은 눈앞의 과제를 간과하지 않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 ‘종교적’임으로 해서 10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종교적 생명력’[靈生·永生·長生]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³⁾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했다.⁴⁾ 남과 북의 역사에서 3.1운동은 공유할 수 있는 원점(原點)이며, 3.1운동의 기본정신인 비폭력 평화사상은 평화와 통일의 공존을 위한 기본정신이 되고,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진취성은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 가는 토대가 된다.

1) ‘3.1운동’은 ‘3.1혁명’으로 호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소명(疏明)는 별고(別稿)를 기약한다.

2) 기도는 개벽종교의 전통에서 말하면 수양(修養)이고, 상상력이란 학술적 용어로는 ‘해석학적 이해’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전적으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는 시(詩)의 ‘사랑’이다.

3) 다만, 3.1운동 당시의 ‘종교·종교인·종교계’의 위상과 오늘날의 ‘종교·종교계·종교인’의 위상이 같지 않다.

4) 남과 북에서의 3.1운동의 위상과 역사적 위상(평가)는 같지 않다. 3.1운동 100주년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의 의미는 남북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그 의미를 확장·확대·확산하고 심화(深化)·체화(體化-실천)·성화(聖化)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북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한다는 것은 크나큰 통일의 진전이다.

그렇게 3.1운동의 종교운동으로서의 의의와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글은 3.1운동에서의 천도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까지의 전사와 천도교 중심의 3.1운동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긴 ‘천도교의 사상’을 주목하는 데 주로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논리 전개 방식도 논증이나 객관을 추구하기보다 ‘한울님’의 힘을 믿고, 신앙적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고, 주관적인 이해와 감성에 치우침, 거친 생략과 비약을 마다하지 않으며, 오로지 한울님의 말씀⁵⁾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祈禱·企圖)한다.

II. 본론

1. 3.1운동은 모심의 혁명-동귀일체 운동이다

1) 사회적 성화로서의 모심의 혁명

동학에서 생명의 전일성은 시천(侍天)의 자각과 양천(養天)의 수행, 그리고 체천(體天)의 실천의 삼위일체로 완성된다. 3.1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시천과 양천과 체천이 상즉상입한 채로 특히 체천으로 구현된 동학-천도교의 종교적 활동의 일환이다. 이를 다르게는 모심의 혁명-동귀일체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 이때 모심다는 것은 동학-천도교의 신앙과 교리와 사상과 철학의 정점으로서 동학의 만(萬) 진리는 주문 21재[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에 귀결되고, 다시 주문 21자는 시·정·지(侍定知) 세 글자, 종국에 가서는 시(侍) 한 글자에 귀납된다. 시(侍), 즉 모심은 다시 ‘안으로 신령이 있고(內有神靈)’ ‘밖으로 기화가 있어(外有氣化)’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는다(一世之人 各知不移)’는 셋으로 분화하는데, 이 시에 모심의 혁명-동귀일체 운동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시(侍)’ 안에는 최수운 선생의 인간과 우주의 자연적 통일로서의 시천(侍天) 사상뿐만 아니라, (종략) 양천(養天) 사상, 나아가 동학혁명 민중 전체와 전봉준 선생, 3.1운동 민족 전체와 손병희 선생 등의 인간과 사회의 혁명적 통일로서의 체천(體天) 사상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천(侍天) 안에 양천(養天)·체천(體天)이 들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양천 안에도 시천·체천이 있으며 체천 안에도 시천·양천이 있습니다. 씨앗 가운데 이미 성장과 열매가, 성장 가운데 씨앗과 열매가, 열매 가운데 씨앗과 성장이 다 있는 것과 같이.⁷⁾

모심의 직접적인 효능은 우리를 각자위심(各自爲心)⁸⁾의 세속으로부터 동귀일체(同歸一體)⁹⁾의

5) 『천도교경전』 『해일신사법설』 <천어(天語)>.

6) 졸고, 「유무상자 경제학과 모심의 혁명」(1)(2), 『개벽신문』 76호, 77호, 2018년 7월호, 8월호, 개벽의 창(2-3쪽) 참조.

7) 김지하, 「인간의 사회적 성화(聖化)-수운사상 묵상」,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112쪽.

신성(神性/神聖)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2) 해방-고비원주 운동

지금은 8.15해방이라는 말보다 8.15광복이라고 쓴다. ‘해방절’이 아니라 ‘광복절’이다. 해방이라는 말 대신 광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해방’이 강대국의 전승의 결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대신 ‘광복’이 광복군과 한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전쟁의 결과로서 쟁취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에서다. 해방은 ‘되는 것’이고 광복은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쓴다. 절절(切切)하지만, 자칫 구구(區區)할 수도 있다. 그 둘은 갈라서 어느 한쪽을 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광복은 해방하는 것이고, 해방은 광복되는 것이다.

3.1운동은 ‘해방하는’운동이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하는 순교(殉教) 운동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해방하는 구원(救援-출애굽)의 생명(生命) 운동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각각의 사슬로부터 해방하여 스스로의 주인(自主)이 되고 주체(自由)가 되는 운동이요, 선천의 적폐로부터 해방하는 후천(後天)의 개혁(開闢)운동이요, 일체의 낡은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개화혁신(改化革新) 운동이요, 암울한 식민체제로부터 해방하는 독립(獨立) 운동이요, 일본을 몽매한 군국주의, 침략주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계몽교화(啓蒙教化)운동이요, 중국과 전 세계 식민국을 해방하는 평화(平和)운동이요, 이 세계를 강권주의,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는 혁명(革命)운동이요, 우리 민족이 앞장선 인류의 고비원주(高飛遠走)운동이다.¹⁰⁾

3.1운동은 이렇게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 무왕불복(無往不復)하며, 원시반본(原始返本)하고, ‘광복되는’ 운동이다. 해방은 과정으로서의 줄탁(擘琢)이고 광복은 완성으로서의 동시(同時)이다. 빛[光]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때 그곳의 빛이며, 그 원형이 한울님이다. 그러므로 광복은 다시 한울님과 하나됨, 즉 시천주(侍天主), 인내천(人乃天)의 체천행도(體天行道) 운동이다.¹¹⁾ (다음,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고찰하는 장 참조).

8) 『천도교경전』「동경대전」「용담유사」 등. 이 ‘세계’의 일체성(一體性)을 망각(忘却)하고, 불순천리불고천명(不順天理不顧天命)하는 삶. 이것이 “억압과 분단, 정복과 전쟁, 왜곡, 소모, 파괴, 약탈, 질병, 오염, 변질, 멸종, 기만, 증오” 같은 전우주중생의 ‘죽임’을 불러온다. ‘죽임’의 의미는 김지하, 앞의 「인간의 사회적 성화」 참조.

9) 『천도교경전』「동경대전」「용담유사」 등.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천인일여(天人一如)와 시천주(侍天主)-인내천(人乃天)을 깨닫고, 경천명순천리(敬天命順天理)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 ‘사람이 곧 한울님임’을 회복하므로, ‘죽임’에 대한 ‘살림’의 삶이 곧 ‘동귀일체’이다. 따라서 해방과 독립, 통일과 진리, 유무상자와 창조, 치유, 청신간결(淸新簡潔)과 자아완성(自我完成-변질의 반대), 영생, 진실, 사랑, 이 그 속성이다.

10) ‘고비원주’의 의미는 줄고, 「고비원주, 고비원주, 고비원주」, 『개혁신문』 제75호, 2018.6. 2쪽. “높이 날고 멀리 뛰라”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의 단절’ ‘뜻을 펼침’ 등의 의미이며, 나아가 ‘모심의 혁명’을 완성하는 다시-개혁, 신문명세계 개혁운동이다.

11) 김지하, 앞의 「인간의 사회적 성화」, 148쪽. “(전략) 그러므로 민중과 중생 속에 살아계신 생명이 민중과 중생의 줄기찬 생명운동을 통해서 중생 속에서 드러남 열림, 즉 생명이 스스로 생명에 이룸, 생명이 스스로 생명답게 자기 자신의 주체에 돌아감, 자아로의 단순반복이 아니라 극히 창조적으로 돌아감입니다. 즉 귀향이며 통일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해방이며, 자유이며, 해탈이며, 개혁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민중생명의 자아회복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3) 보국안민-다시개벽 운동

(1) 천도교 보국안민 운동사와 3.1운동

역사적으로 볼 때, 3.1운동은 천도교 보국안민(輔國安民) 운동사의 한 정점(頂点)이다. 보국안민은 천도교(동학)를 창도한 수운 최제우 선생이 동학 창도의 과정과 그 의의(목적)를 밝힌 글(布德文(天道와 天德을 펴는 뜻을 밝힌 글))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¹²⁾

보국안민에서 ‘국(國)’은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치국-평천하’의 계기, 즉 평화 세계의 기점(起點·基點)으로서의 ‘나라’이다.¹³⁾ 다시 말해 천도교는 창도 당시부터 한 나라의 평화로서 그 인민을 평안(平安)하게 하고, 나아가 온 세계(十二諸國)의 괴질(怪疾=帝國主義, 侵略主義, 強權主義)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세계를 열고자 한 ‘다시-개벽’운동이었다.

보국안민운동으로 건설할 새로운 평화 세계를 천도교에서는 ‘다시개벽’의 세계로 지칭하였고, 따라서 천도교 입장에서 3.1운동은 천도교 창도 목적인 보국안민 운동이며, 다시개벽(後天開闢)운동의 한 계기로서의 자주독립운동이다. 다시개벽 운동으로써 이룩되는 새로운 평화세계를 천도교에서는 ‘지상천국(地上天國)’으로 지칭하였고, 따라서 천도교 입장에서 3.1운동은 이 땅에 한울님 세상(나라)을 세우는 지상천국건설 운동¹⁴⁾이었다. 이 보국안민-다시개벽-지상천국 건설운동은 천도교 창도(1860.4.5.) 이래 지금까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오는 운동이다.

3.1운동 전까지 동학의 보국안민운동은 다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며 전개되었다.

첫째,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운동으로서의 민회(民會=敎祖伸冤運動)운동이다. 이것은 동학이 지향하는 새 국가 건설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민회(民會)운동이었다.¹⁵⁾ 또 민회(民會)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은 훗날 3.1운동의 성과로 등장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화정을 채택할 수 있는 사상적, 역사적(전통적) 연원이 된다.

둘째, 신(新)존왕주의 국가 기틀 강화운동으로서의 동학혁명¹⁶⁾이다. 동학군들은 ‘신(新)존왕주의’를 기반으로, 권귀(權貴=부패 관료)를 배제한 가운데, 민권(民權)을 군권(君權)과 직결(直結)하여 국권(國權)을 강화하고, 이로써 자주로운 신(新)조선을 만들어가자는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¹⁷⁾ 다시 말해, 동학혁명은 자생적(자주적), 토착적 근대화 운동이었다.

셋째,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 건설운동으로서의 갑진개화운동(甲辰開化運動)이다. 동학혁명 좌절 이후 1900년 초부터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더 거치며 동학(천도교)은 진보회(進步會)라는 단체

12) 『천도교경전』『동경대전』<포덕문>,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중략)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13) 『천도교경전』『용담유사』<안심가>, “개벽시(開闢時) 국초일(國初日)을 만지장서(滿紙長書) 나리시고 십이제국(十二諸國) 다 버리고 아국운수(我國運數) 먼저 하네.”; <안심가>, “십이제국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개벽 아닐런가.”; <몽중노소문답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14) 졸고, 『東學思想과 地上天國 建設運動』, 『無極』 창간호, 東學無極思想研究會, 2001 참조.

15) 2000년대의 ‘촛불시위’는 동학의 이 ‘민회’운동이 면면히 계승되어 온 것으로 본다. 김종철, 『촛불시위와 ‘시민권력’』, 『녹색평론』 제152호 2017년 1-2월호.

16) 필자는 현재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통칭되는 역사적 사건의 올바른 명칭은 ‘동학혁명’이라고 본다.

17) 이영재, 『근대와 민 인간존중·신분해방 사상이 만든 민주공화국』(2018.5.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조선헌조 말기의 동학운동을 재조명하였다.

를 결성하고 대한제국을 입헌군주로의 전환하고, 부국강병이라는 서구적 근대화의 길을 통해 보국안민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이때 천도교가 취한 보국안민 운동 전략이 교정쌍전(敎政雙全)이다.¹⁸⁾ 이 교정쌍전은 그동안의 보국안민운동이 ‘국(國)’을 우위로 한 운동이었던 데서 ‘교(敎=宗教)와 정(政=國家)을 겸전(兼全=雙全)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술어이다.¹⁹⁾ 이는 천도교(東學) 중심의 근대국가 건설운동이 영성운동(靈性運動)과도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²⁰⁾

넷째, 교육입국(教育立國)의 측면에서의 교육운동과 언론출판을 통한 계몽운동이다. 의암 손병희는 일본 망명(1900-1905) 시절 국내의 청년들을 일본으로 유학시켰으며 귀국 후에는 보성전문 학교(현 고려대학교)를 포함하는 보성학교, 동덕여자의숙(현 동덕여대) 등 전국적으로 십여 개의 각급학교를 직접 경영하거나 정기적인 보조를 하였다. 또한 보문관(普文館)이라는 출판사를 세워 각종 교서(敎書)와 더불어 <만세보(萬歲譜)>라는 일간신문을 간행하여 신문물과 사상을 소개하고, 일진회 등과 사상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네 단계의 보국안민-다시개벽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의 열망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 기미년의 3.1운동이다.²¹⁾

여기서 다시개벽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더불어 새로워지는 것으로, 하늘과 땅이 나뉘는 선천 개벽이 물리적 개벽인 데 비하여, 인문개벽이며, 영성개벽이며, 생명개벽이다.²²⁾

(2) 3.1운동과 천도교의 전력투구

이상에서 살펴본바, 창도(1860)년 이래 면면히 이어 온 보국안민운동의 전통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반으로 의암 손병희 선생은 3.1운동을 일시적인 기분이나 일회적인 기회(이 운동으로 즉각적인 독립을 성취하겠다는)가 아니라, 영구적인 혁명,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전파하는 운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해 나아갔다. 3.1운동에서의 ‘주도적이고 선구적인 역할’에 값하기 위하여 천도교는 ‘전심전력(全心全力)-시쳇말로 올인(all-in)-하였다. 동학에서 천도교로 대고천하하면서부터 이미 천도교의 교단적 과제는 ‘독립’이었다.²³⁾

첫째,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한일합병조약’이 선포되는 날 의암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중앙 총부의 교역자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국권회복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내 반드시 10년 안에 이것을 이루어 놓으리라”고 천명하였다.²⁴⁾

둘째, 독립운동을 지도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숙(學塾)으로서 봉황각(鳳凰閣)을 지금의

18) 오문환, 「의암 손병희의 ‘교정쌍전’의 국가건설 사상: 문명계몽, 민회운동, 3.1독립운동」,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 연구』 제10집 2호, 2004, 59-84쪽.

19) 위 논문 참조.

20) 오문환, 「천도교의 이상정치론: ‘교정쌍전(敎政雙全)’을 중심으로」, 동학학회, 『동학학보』 제16호, 2008, 125-144쪽 참조.

21) 천도교단 내에서는 1914년, 이종일은 보성사를 근거로 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기획하여 의암 손병희 선생에게 교단적 차원의 독립운동 전개를 건의하였다. 또 1917년부터는 이종일이 중심이 된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독립운동이 기획되었다(cf. 『목암비망록』). 갑오년(1894)의 동학혁명, 갑진년(1904)년의 개혁운동, 갑인년(1914)의 독립운동을 통칭하여 삼갑운동(三甲運動)이라고 호명한다.(이현희, 『3.1혁명 그 진실을 밝힌다』, 신인간사, 1999)

22) 『천도교경전』「해월신사법설」<개벽운수(開闢運數)>: 「의암성사법설」<인여물개벽설(人與物開闢說)>.

23) 오상준, 『초등교서』,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07 참조.

24)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 『천도교와 3.1운동』,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포덕155(2014).12. 2쪽.

강북구 우이동, 당시로서는 인가가 거의 없는 깊은 산골짜기에 건립하였다. 이곳에서는 1912년부터 1914년까지 3개년(만 2개년)에 걸쳐 전국 각지의 두목(頭目, 敎區 또는 淵源의 지도자) 483명을 7차에 걸쳐(21-49-49-49-105-105-105) 49일간의 특별 연성(煉性 = 性靈 修煉)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훗날 기미년 독립운동 당시 각 지역의 3.1운동을 기획하고 선도하였다.²⁵⁾

셋째, 1919년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의 천도교인들에게 일제히 49일 기도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49일 기도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덕목이 이신환성(以身煥性)이다.

넷째,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가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그대로 두라”고 하면서, 거둬진 손실을 보전해 주며 계속 경영하게 하였다.

다섯째, 천도교중앙대교당을 건립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천도교인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일부 자금으로 대교당을 짓고 대부분의 자금은 만세운동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만주 방면의 독립운동 자금, 상해 방면(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등으로 제공하였다.²⁶⁾

여섯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3.1운동의 이념과 이상과 이론을 천도교가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념과 이상과 이론이 ‘기미독립선언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²⁷⁾

2. 3.1운동은 종교운동이다

1) 종교인들이 앞장선 운동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도교는 이처럼 오랫동안, 그리고 전면적으로 3.1만세운동을 준비했지만, 기미년 만세운동을 천도교만 준비했던 것은 아니다.²⁸⁾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3.1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학생들 또한 특히 동경유학생의 2.8독립선언에 자극받아 학생 독자적인 3.1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만, 3.1운동이 3.1운동이게 된 까닭은 천도교(의암 손병희)가 중심이 되어 그 모든 흐름을 하나의 운동으로 귀결시킨 덕분이다.²⁹⁾

1차로 연대의 대상으로 고려되었던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3.1운동의 흐름은 ‘종교계’와 연계를 맺으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것은 3.1운동이 종교(기도)운동으로서 오늘날 세계사적인 지평의 의미를 갖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순간

25) 이 밖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는 3.1운동과 관련된 천도교 사적(史蹟)들이 수십 곳에 달한다. 박길수, 『서울, 3·1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포덕152(2011)년 12월 24일; 이동초, 『보국안민의 발길로 서울을 걷다』,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7. 참조.

26) 3.1운동 후에 천도교단은 재정적인 면으로나 인적(조직)인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27) 이 항에 대해서는 각 종교가 ‘자기’의 관점에서 충분히 소명(疏明)할 수 있을 것이다.

28)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신보사, 1969. 59-60쪽. “(일손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독립 가능의 풍설은 자못 조선(과) 내지(日本)에 전파되며, 또 상해 재류의 조선인은 비밀히 서선(西鮮)에 출몰하여 독립운동을 선전하니, 경성 각지의 인심이 점차 동요하여, 도처에서 독립운동이 발발의 징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外的)인 조건의 성숙 이전에 중요한 것은 천도교단(기독교나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 자체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러한 외적 조건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29) 가장 단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계기는 (1)역력한 투쟁의 경험, (2)재정역량 (3)조직 동원력이다. 당시 2,000만의 조선인 중 종교인의 분포로 보면 천도교는 최대 300만 명, 기독교(개신교)는 최대 30만 명, 즉 10: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었다. 독립 만세를 선언하는 대표, 즉 민족대표들은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천명(天命-한울님의 계시)에 따라 종교인들로만 구성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3.1운동은 종교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민족대표’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정서가 최근 들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출(選出/先出)되지 않은 대표일지언정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선두(先頭)에서 선도(先導/善導)하는 선생(先生)으로서의 민족대표의 위상은 결코 폄하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민족대표란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니만큼, 주어(主語)는 민족 구성원 ‘최후의 일인(一人)’까지를 일컫는 것이며, 대표(代表/代身)란 말은 ‘용사(用辭)’로 이해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의 역할은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팽배하던 민족독립의 기운을 천도교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활용하여 현실화하고, 대중화·일원화·평화화(비폭력)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것이었을 뿐이다.³¹⁾ 그리고 보국안민-다시개벽운동이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3.1운동에 즈음한 종교(계/인)의 역할은 ‘자주적이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산출(產出)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문명 세계(新天地)의 비전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보국안민-다시개벽-지상천국 건설운동의 근대적 버전이 바로 3.1운동이다.

2) 기도운동이자 각성 운동

3.1운동 준비의 핵심 세력인 민족대표 33인은 왜 탑골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였는가? 등의 (잘못된) 물음들이 3.1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고, 그것이 되풀이된다. 3.1운동을 ‘기도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이해도 가능해진다.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 대표의 한 분인 권동진은 ‘독립선언’이 ‘뜻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일’이며, ‘장래 기필코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확신은 단순한 종교적인 신념(信念)을 넘어서는 ‘기원(祈願=祈禱)’이었다(심문조서). 특히, 3.1운동을 앞두고 의암 손병희 선생은 독립운동의 의의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³²⁾

같은 맥락에서 3.1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 민족대표들의 회고담이나 자서전, 심문조서와 역사 기록 등을 보면,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천도교와 합동하기로 결심하고, 피검 이후 감옥에서 고난과 순교를 심정(審定)하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응답을 구하는 장면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 이렇게 해서 발발한 3.1운동은 한마디로 민족 부활의 난장(亂場)이자 축제로서의 ‘천제(天祭)’였으며, 민족 각성(覺性-修道/覺醒-啓蒙)의 수도장(修道場)이자 민족학교였으며, 설교

30)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널리 알려진 사실은 1910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국권이 피탈된 이후 국내의 모든 정치(적인) 결과가 해산되었으므로, 종교 단체가 유일하게 ‘조직적인’ 운동을 준비하고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울님의 명령(命令)이 종교기관에 내려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 특히, 무단통치가 횡행하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에서 ‘비무장 투쟁’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리고 위력의 야만 시대를 보내고 도의의 신 문명세계를 지향하는 천도교 보국안민 운동사의 맥락에서, 최선의 선택지이기도 했다.

32) 앞의 『의암손병희선생전기』, 343쪽.

(說教)와 통성기도(通聲祈禱)가 펼쳐지는 교당(教堂/教會)이자 부흥회장이었다. 그 천제에 전 민족이 동참하였고 학습하고 수도하고 계몽되었으며 교양³³⁾되고 마침내 각성(覺醒)³⁴⁾되었다.

3) 삼위일체 운동

3.1운동은 '셋이 하나가 되어 전개하는 운동이다. 기독교, 불교, 천도교가 하나 되어 추구한 운동이며, 종교계와 시민사회와 학생단의 셋이 하나가 되어 추구한 운동이다. 중앙과 지역 그리고 해외가 하나가 되어 추구한 운동이다.³⁵⁾

3.1운동에서 기독교, 불교, 천도교에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다. 천도교 - 민족운동사의 맥락, 물질적·조직적 기반을 동원하고 제공, 기독교-신앙적 결단³⁶⁾으로써 종교운동으로서의 3.1운동의 내포, 학생단의 참여, 기독교 선교사들은 3.1운동의 실상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 불교-‘삼위일체’ 완성하는 역할을 다하였다. 또 기독교, 불교, 천도교의 삼위일체는 지방 각지의 하부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1400여 회의 만세 시위 중 준비 과정이 자료로 남겨진 323지역 가운데, 78개 지역이 기독교가 선도하고 천도교가 동참하였으며, 66개 지역에서는 천도교가 선도하고 기독교가 동참하였다. 또 42개 지역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동하여 거사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산견(散見)된다.³⁷⁾

33) 권보드레, 「선언과 등사(謄寫)-3.1 운동에 있어 문자와 테크놀로지」, 반교어문학회, 『泮橋語文研究』 제40집, 2015, 398 쪽. “하나의 사례로 시위에 참여했던 이발사 박응수의 상고문을 보자. 박응수는 흡사 독립선언서를 풀이하기라도 하는 양 “십년 전 침략주의의 낡은 사상에 접촉한 일본 정치가의 공명적 희생이 되어’ 식민지가 된 지 10년, 민족자결주의의 본지에 의해 자주 독립을 결심하니 ‘정의 인도로써 세계를 개조하려는 이 시대에 가령 타국의 영토.식민지로서 그 기반 하에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문명의 정도가 충분히 자주할 만하다면 민족자결을 할 수 있을 것’(847)이라고 진술한다. 신문과 재판 과정을 통해 그의 진술은 마치 독립선언서가 인격화된 듯한 언술로써 가득 차 있다. 대중 스스로 언어가 되고 또 언어를 실천한 이들 사례들은 3.1 운동이 언어적 사건이었음을, 그러면서도 언어와 현실 사이 이분법을 꿰뚫는 수행적 사건이었음(perlocution: 발화효과행위)을 증명하고 있다.”

34) 『천도교경전』 「동경대전」 <논학문>, “일세지인 각지불이(一世之人 各知不移).”

35) 민족대표 33인의 역할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태화관에 모여서 한용운의 선창으로 만세 3창을 한 것으로 종료되고, 그 이후는 학생들의 주도로, 또 각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역사 왜곡이다. 천도교단의 10년에 걸친 조직적인 독립운동 준비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3.1운동에 임박해서는 첫째, 2월 하순부터 기독교계 참여자들은 자기 고향 또는 근거지를 순회하며 ‘만세운동’을 암시하고, 중앙의 궤기에 지역에서 호응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였으며, 둘째, 3월 1일 전후로 독립선언서가 각 지역에 ‘조직적’으로 분배되면서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조직화가 진행되었으며, 셋째, 3월 1일에 ‘보성사’에서 ‘조선독립신문’ 제1호가 발행된 것을 필두로 조선독립신문이 수십 호에 걸쳐 발행되어 지속적인 독립만세 시위의 확산을 독려했고, 넷째, 각 지역별로 기독교나 천도교 단독, 또는 기독교와 천도교 연합으로 만세운동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결행되었다는 점, 다섯째, 일본과 미국은 물론 상해로 사전 또는 사후에 메시지를 파견한 것 등을 통해서 볼 때, 3.1운동은 그 시작과 전개과정 그리고 1년 내내 지속되었던 것 모두가 민족대표(종교계)의 치밀한 준비와 계속적인 동력 제공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점이 3.1운동의 본질이다.

36) 당시 천도교는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에 의거하여 대규모 조직이라도 일사불란하게 기포(起包)할 수 있는 조직 체계와 경험이 있었다. 그에 비하여 기독교는 각 지역별(교회별)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가운데서도, 민족 독립을 위한 궤기라는 기치(旗幟)에 주목하여 신앙적 결단(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음)으로써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기독교는 이로써 3.1운동을 통해 “신앙-정치의 통섭(교정일치)”이라는 ‘동학적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cf-신석구 목사(“4천년을 전하여 내려오던 강도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나?”).

37) 이런 가운데 천도교여성들의 독립만세 참여 정황도 포착할 수 있다. 함경도 북청 출신의 군암 이우영 선도사는 회고담에서 북청 지역의 3.1운동 소식을 전한다. 앞의 「독립선언 반세기의 회고」(이우영 씨 談 참조).

이처럼 3.1운동은 천시(天時)-‘한울님(神)’의 감응과 지리(地理)-민족자결주의와 세계개조의 대
기운, 그리고 인화(人和)-민족대단결, 다시 말해 천지인(天地人)의 삼위일체 운동이다.

4) 청년(신세대 · 신시대 · 신문명) 운동

3.1운동은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청년운동이다. 첫째, 구시대 인물들이 스스로 제2선으로
물러서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세대’³⁸⁾가 등장한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청년운동이다. 당시 민족
대표들 가운데는 60세를 넘긴 이(이종일, 이종훈)도 있었으나,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들은
새로운 신앙과 사상으로 스스로를 세레하고, 새로운 세계(문명세계)를 지향하는 ‘청년’들이었다.

둘째,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당연히
청년운동은 여성(여학생) 운동과, 청년(+여성)이 지도하는 ‘소년 · 학생’운동까지를 포괄한다.³⁹⁾

셋째, 3.1운동 이후 특히 1920년대는 청년운동의 시대였다. 국내에서는 문화운동이, 해외에서
는 독립투쟁이 그 주류를 차지하며, 그것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동력으로
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간 주체로서의 청년이 형성되었다.⁴⁰⁾

3.1운동 후 천도교회의 청년들이 청년단체로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설립(1919.9.2.)한다
는 소식을 감옥에서 전해 들은 손병희는 이렇게 화답한다; “응, 그래! 그럴 걸, 그러리라. 앞으로
는 포덕이 더 많이 나니라. 그리고 청년들이 하는 일을 부디 잘 도와주어 ‘그것이’ 잘 되어야지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여. 나도 그것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냐!”⁴¹⁾

3.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책임하에 작성 배포되었다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35년 동안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두 103개이, 그 가운데 1910년에
서 1919년까지만 61개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⁴²⁾ 그중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반 민중이 이해
하기는 너무 어렵다’거나 ‘투쟁성이 빈약하다’는 비판(오해)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언서’라는 것이 정당한 평가라고 본다.⁴³⁾ 그러나 한국독립운동사상의 의의뿐만이

38) 이완용 등 친일파는 물론이고, 김윤식, 박영효, 한규설, 윤치호 등 구한국 관료 들에 대한 참여 권유가 무위로 돌아가자
최린은 “그 사람들은 이미 노후(老朽)한 인물들이오. 독립운동은 민족의 제전이오. 신성한 제수(祭需)에는 늙은 소보다도
어린 양이 더 좋을 것이외다. 차라리 깨끗한 우리가 민족운동의 제물이 되면 어떻소.”(『의암손병희선생전기』, 330쪽)라
며 손병희 선생을 ‘영도자’로 하고 ‘젊은이’인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는 방향으로 ‘민족대표’ 선정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39) 1919년 9월 결성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는 1923년 ‘천도교청년당(天道教靑年黨)’으로 개편하는데, 이때 청년당의
하부 조직으로 ‘청년회(靑年會)’가 있었다. 이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청년당의 ‘청년운동’은 단순히 ‘계층으로서의
청년’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시대의 주역이자 전위(前衛) 운동로서의 청년운동이라는 점이다.

40) 천도교여성회는 1926년 결성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41) 천도교청년당 편, 『천도교청년당소사』, 천도교청년당본부, 1935.

42) 김소진, 앞의 『1910年代의 獨立宣言書 研究』.

43) 이운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86쪽,
“이 선언서는 누가 읽어도 커다란 박력을 가지고 감명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략)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언서라고 할 만한다.”

아니라, 그동안의 독립선언서에 관한 이해에서 ‘종교적 상상력과 혜안(慧眼)’이 누락됨으로써 그것의 가치가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고 보고, 이 글에서는 그 관점을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누가 썼는가

독립선언서 작성자는 1차적으로는 최남선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서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33인의 공동지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공동지성은 인심(人心)이 아닌 천심(天心)이며, 다시 말해 한울님(하느님, 부처님)의 감응(感應/應答)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명명백백하게 선언서 말미에 33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요!”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 지난 20년(1900-1919)년간의, 좀 더 길게 보면 1860년 이래 면면한 위정척사(衛正斥邪)-개화혁신(改化革新)-다시개벽 운동의 노정에서 축적되어온 민중/민족의 지혜와 성심(性心·聖心·誠心)의 결실로서 민족대표들의 성력을 모아 독립선언서는 지어진 것이다.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썼다’는 말이 선언서 집필자 관련 화제(話題)의 중심이 된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본말전도의 상황이다.

1910년 후반에 이르러 의암 손병희 선생은 최린, 권동진, 오세창 세 분과 국내외 정세를 두고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1919년 1월 이들 세 사람은 상춘원에서 연성수련 중이던 손병희 선생을 찾아뵙고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왔음을 보고하였다. 의암 손병희 선생은 이때 독립운동 추진의 세 가지 원칙-“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특히 공약삼장에 나타난 정신은 이러한 3대 원칙을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2) 작성과 배포

이러한 ‘진실’을 전제로 하고, 『의암손병희선생전기』에 나타난 독립선언서 작성과 인쇄 및 배포가 이루어진다(쪽수는 위 책의 쪽).

(1) 1단계: 최린이 최남선에게 독립선언문 작성을 의뢰하다; “최남선은 ‘나는 내 생애를 통하여 학자의 생활로 관철하려고 이미 결심한 바 있으므로 독립운동 표면에는 나서고 싶지 않으나 독립선언문만은 내가 지어볼까 하는데 그 작성상의 책임은 최 형이 져야 합니다.’ 하고 최린에게 물으며 자천(自薦)하고 나섰다. 최린은 (중략) 의암 선생의 뜻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내세우니 이를 반드시 선언문에 반영하도록 부탁하고 속히 착수하도록 말하였다. (345-346쪽)⁴⁴⁾

(2) 2단계 : 최남선, 초고를 작성하여 최린에게 보내다; “그는 2월 25일 우선 완료된 선언문의 초고를 최린에게 가지고 와 교부하였는데 (중략) 오세창, 권동진에게만 보여주어 문안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346쪽)

(3) 3단계 : 공약3장⁴⁵⁾ - 공약삼장을 누가 작성했느냐에 대해 김삼웅은 『만해 한용운 평전』에

44) 『默菴備忘錄』, 1919.2.8. “내(이종일-인용자 주)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뜻과 같이 되지 않다.” 1919.2.11. “육당이 선언서를 작성 완료하다.”

서는 이에 관한 이설(異說)이 등장하고, 반론과 재반론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소개⁴⁶⁾하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과 증언을 종합할 때 ‘공약삼장’은 만해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남선 소작(所作)으로 본다.⁴⁷⁾ 무엇보다 이 공약삼장은 최린이 의암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신칙(申飭) 받은 독립운동의 3원칙(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독립선언서의 근본정신인 최남선의 필력(筆力)이 아니라 의암 손병희, 나아가 종교인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라고 본다. 또한 대다수의 독립선언서 서명자(민족대표)들은 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를 ‘폭력적 투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앞의 사람이 구속되더라도 그다음 사람이 그 뜻을 계승하여’ 진행되는 것, 서울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방 각지 고을고을마다에 이르기까지 독립선언을 계속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였고, 실제의 만세운동도 그렇게 전개되었다.⁴⁸⁾ 선언서 문장 전체와 마찬가지로 공약삼장에서 우리가 깊이 논의해야 할 것은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⁴⁹⁾

(4) 4단계 : 보성사⁵⁰⁾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다⁵¹⁾; “독립선언문 초고가 완성된 후 인쇄는 천도교가 경영하는 보성학원 내 보성사 인쇄소에서 행하였다. (중략) 최남선이 경영하는 신문관 인쇄소에서 조판한 후 (중략) 27일부터 보성사 인쇄소에서 인쇄에 회부하였다. 극비의 문서를 인쇄해야 될 사장 이종일은 (중략) 하오 6시부터 인쇄에 착수하였다.(346-347쪽)⁵²⁾

45) 『獨立宣言書』, “公約三章 一. 今日 吾人의 此舉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이니, 오즉 自由의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一.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一.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여,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46) 김삼용, 『만해 한용운 평전』, 시대의 창, 2011(3쇄), 172-181쪽 참조.

47) (1) 최린 자서전에서 육당의 제의(독립선언서 초안 작성)를 거절했다고 밝힌 점 (2) 만해가 스스로 공약삼장을 자신이 썼다고 밝힌 사실이 없는 점 (3) 만해가 공약삼장을 추가할 여지(시간과 상황)이 없었던 점 (5) 최린이 명시적으로 선언서 초안을 육당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던 점 (6) 최남선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선언서 초안만은 자신이 작성하겠다고 자임하였던 점 (7)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공약삼장이 선언서 본문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최남선 자신도 독립선언서와 대일본 통고문, 일손대통령에게 보내는 의견서,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메시지 등 일체의 ‘내 의사로서 작성해서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최남선,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세계』, 1956, 18쪽(이운상, 앞의 책, 85쪽 재인용).

48) 김소진, 앞의 글, 104-105쪽 참조.

49) 필자의 의견은 이렇다. 첫째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일찍이 천도교에서 3.1운동을 기획할 당시에 염두에 두었던 3대원칙의 구체적 반영이라는 점이다. 둘째, 공약삼장의 ‘자유적 정신 - 배타적 감정’이 대를 이룬다. 따라서 배타적 감정은 단지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만세운동에의 참여가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의견·의사·의지에 의한 것(自由)임, 다른 말로 주체적임을 의미한다. 또 감정으로부터 ‘정신’으로의 초월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셋째,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는 동학-천도교의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사회적 천명이요, 불교 ‘돈오점수(頓悟漸修)’ ‘환멸연기(還滅緣起)’의 민족적 구원이다(김지하, 『인간의 사회적 성화』 137-138쪽). 넷째, ‘질서존중-광명정대’가 호응하는데, 질서존중이 광명정대(光明正大)의 조건이 됨을 볼 때 질서란 단지 사회적 질서만이 아니라, 종교적·철학적·교육적으로 요구되는 일체의 수행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 보성사는 1910년 천도교에서 보성학교(보성전문, 보성중학, 보성소학; 현 조계사 경내에 자리 잡고 있었음)를 인수할 때 함께 인수한 ‘보성학교 구내 인쇄소’이다. 현재 조계사 뒤편 ‘수송공원’에는 보성사가 조계사 자리에 있었음을 알리는 표지석과 당시 보성사 사장 이종일 선생의 동상, 그리고 3.1운동 80주년이 되던 1999년에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여 건립한 ‘보성사기념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다.

51) 『默菴備忘錄』에 따른 2월 20일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기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52) 이때 인쇄소 불이 꺼져 있는데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종로경찰서 신승희(申勝熙)가 들이닥쳤다. (중략) 의암 손병희 선생은 종이뭉치(일금 오천 원)를 내어 와서 신승희에게 전하라 하였다. 신승희는 그 돈을 받고 순순히 물러나 3.1운동 발발 시까지 함구하였다. 후에 만주에 출장하였다가 5월 14일 서울로 귀경하던 신승희는 체포되

(5) 5단계 :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을 배포하다. - 독립선언서는 1차 인쇄가 완료(25일, 묵암비망록에 따름)된 다음날인 26일부터 이종일과 이갑성의 주도하에 미리 약속된 표식(청색 쪽지)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천도교에서는 인종익, 안상덕, 김흥렬, 이경섭 등이, 기독교에서는 이갑성, 오화영, 김창준, 함태영 등을 경유하여 각각 8도를 분담하였다. 불교 측에서는 한용운이 중앙학림(현 동국대학교) 학생 정병현, 김상헌, 오택언, 전규현, 신상환, 김법륜 등을 통해 배포하도록 하였다. 학생단은 이갑성, 박희도, 김문진을 경유하여 김성국, 강기덕, 김원벽 등 보성전문과 연희전문의 학생 대표들을 통해 서울 시내에 배포토록 하였다.⁵³⁾ 학생들은 3월 1일 새벽에 서울 시내 각 가정에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였다.⁵⁴⁾

기미 독립선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이다. 비폭력 무저항이었기에 세세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선언서’의 보급과 그 정신의 전파가 기미 독립만세운동의 더 큰 목표였다는 차원에서 이해함이 더 정당하다.

3) 조선독립신문, 또 하나의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의 인쇄 및 배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선독립신문>의 인쇄 및 배포이다. 조선독립신문은 3월 1일 보성사에서 제1호가 발행된 이래로 ‘신출귀몰한’ 방식으로 수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발행되면서 3.1운동의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독립운동을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선포·전포하는 데는 이 조선독립신문이 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⁵⁵⁾ 대부분의 심문조서에서 <조선독립신문>은 빼놓지 않고 등장하였다.⁵⁶⁾

3.1 운동 와중에 발행된 매체로서 대표적인 『(조선)독립신문』(18)은 당시 매체의 증식과 변형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중략) 제4호까지의 원고는 이종린이 작성했으나 그가 체포된 후에는 장종건이 “스스로 독립신문의 발간을 계속하고자 생각하여” 최기성 등 학생 여럿의 협력에 의지해 제9호까지를 발행해 냈다. (중략) 장종건까지 검거된 후에도 『(조선)독립신문』은 계속 발행된다. 무명씨들의 자발적 속전(續戰)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중략) 『(조선)독립신문』이 3.1 운동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고 임시정부의 기관지로까지 계승된 것은 이 때문이라 할 터이다. 『(조선)독립신문』은 창간호 1만부 인쇄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릴레이에 의해 여러 달을 발간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증식과 변형의 운동성을 상징해 냈다. 그것은 곧 3.1 운동 자체의 생리이기도 했다.⁵⁷⁾

었고, 체포된 후 미리 준비하였던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말았다(당시 40세).

53) 이현희, 『3.1혁명, 그 진실을 밝힌다』, 신인간사, 1999, 221-222쪽.

54) 앞의 『의암손병희선생전기』, 356쪽.

55) 조선독립신문의 제작과 배포 과정에 대해서는 이동초, 『천도교 민족운동의 새로운 이해 - 분열의 역사를 넘어서는 통섭적 천도교 민족운동사를 위한 시론』,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0 참조.

56) 이병현, 앞의 글, “한편 손병희 선생의 명으로 ‘(조선)독립신문’이 발행되었다. 윤익선 선생을 사장, 이종린 선생을 편집인으로 한 이 신문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에 함께 인쇄하였다. 이것은 3월 1일 탑동공원을 위시하여 시내 각처에 철폐되었는데, 천도교청년들이 그 배포를 담당하였다.”

57) 권보드레, 앞의 글, 379-381쪽.

조선독립신문의 이러한 발행 방식이야말로 독립선언서의 공약3장에서 밝힌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의 실질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4. 종교인의 ‘상상력’으로 독립선언서를 읽자

3.1운동에서 종교의 위상은 시나브로 거세되어 왔다. 3.1운동에서 종교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3.1운동은 종교인들이 시작하였지만, 종교운동이 아니라 민족운동이었다”)는 종교계 안팎을 막론하고 두루 힘을 얻어 가고 있다.

계다가 오늘날 탈(脫)종교 문명이 시대의 대세가 되고, “종교가 세상과 사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과 사회(국가)가 종교를 걱정하며 원조(각종 비용)”하는 시대가 되면서, 종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무신론(無神論)에 입각한 근대(과학)문명이 전 세계를 풍미하는 이 시대에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찍이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한 이래 ‘만들어진 신’⁵⁸⁾이라는 말이 득세(得勢)하고, 당대 최고의 과학자는 유언에서조차 “신은 없다”⁵⁹⁾는 말을 강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종교의 미래는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신 없는·사막의·황량한·절망의 세계·문명·우주’로 가는 길과 ‘신과 더불어·한 몸으로 사는 세계·문명·우주’로 가는 길의 갈림 길에 서 있다. 어느 세계·문명·우주가 우리의 실제 미래가 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달려 있다.⁶⁰⁾ 이러한 종교적 상상력의 계발(啓發)을 촉구하면서, 그 출발점으로 기미년의 독립선언서를 종교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읽어 보자. 이러한 종교적 상상력의 부활이야말로, 미래의 종교를 재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선언’으로서 완성되는 글, 기도문⁶¹⁾

독립선언서의 첫머리는 “①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임, ②인류평등의 대의, ③자손만대에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함을 ④ 선언, 포명, 주장, 제기한다. 그리고 이것이 ⑤ 하늘의

58) 리처드 도킨스 지음, 이한음 옮김, 『만들어진 신 -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김영사, 2007.

59) 스티븐 호킹 유고집, 『큰 문제에 대한 간략한 대답(Brief Answers to the Big Questions)』, 2018. - 내용에 대해서는 출간 당시의 신문 기사를 참조함.

60) 데이비드 코튼 지음, 김경식 옮김, 『이야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지영사, 2018. 12쪽. “지금이야말로 살아 있는 우주로부터 출현한 살아 있는 지구의, 살아 있는 존재로서 인간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가능성에 따라 살 수 있는 전례가 없는 순간이다. 신성한 삶과 살아 있는 지구의 진정한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 (중략)이야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 종교의 ‘신’은 결국 ‘살아 있음’을 신화(神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종교는 존속될 것임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종교’ 역시 ‘차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살아 있음을 ‘신격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무신론자와 종교인이 갈라진다. 즉, 무신론자의 반대는 유신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다.

61) “선언으로써 완성되는 글(말)”은 언어학적으로 ‘수행적 발화(遂行的 發話, performative utterance)’라고 한다. (중략) 수행적 발화는 ‘말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그런데 오스틴은 (중략) 참, 거짓과 관련 없는 문장들 또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라 보고 이를 모두 수행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계약적 발화이거나 선언적 발화를 모두 수행적 발화의 한 형태로 보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행적 발화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자료원)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동생권의 발동”임을 밝힌다.

‘선언’은 그 자체로 종교적이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첫날에 “하느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
오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화법(話法)과 용법(用法) 그
대로, 독립선언서의 첫머리는 하느님에게 오늘의 일을 돌이키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이다. 석가모
니 부처님의 탄생계(誕生偈)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그 ‘선언’의 화법과 용법
그대로가 독립선언서가 되었다. “개벽시(開闢時) 국초일(國初日)의 만지장서(滿紙長書) 나리시고,
십이제국(十二諸國) 다 버리고 아국운수(我國運數) 먼저 하네”⁶²⁾ 그대로가 독립선언서이다. 기도
는 절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문은 ‘발화(發話)’와 동시에 완성되는 ‘수행적 발화’이다. 진인사
(盡人事) 대천명(待天命)에서 진인사가 완결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과 입장은 독립선언서에서
수미쌍관(首尾雙關)하고 전일(全一)하다.

오등은 자(玆)에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중략)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前頭: 앞쪽)의 광명으로 맥진(驀進: 힘차게 나아감)할 따름인데!

독립선언서의 지상(至上)의 위력은, 그것이 선언함으로서 완수된다는 데 있다.

2) 민족의 주문(呪文)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 2만1천매가 인쇄되어 그날로 서울에서 전국 8도로 분포되었
다.⁶³⁾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선언서는 빠르게 전염되고 증식하고 변형됐다. 서울에서 작성한 선언서의 일부만 인쇄하거나 ‘민족대
표’의 명칭만 비는 등 변형의 사례는 무수했다. 위에서 든 원산에서는 2월 27일 서울 발 선언서를 수
취했지만 그 사이 자신들이 작성한 선언서에 33인의 명의를 삽입해 식장에 살포했다. 평안남도 진남
포에서는 독립선언서 전체를 쓰는 대신 서두와 대표 서명 부분만 발취해 인쇄에 부쳤다.⁶⁴⁾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서는 ‘종교인의 기도문’에서 민족의 공동창작이자 집단지성의 소작(所作)
으로 승화되어 갔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
와 교당과 사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교와 관공서에서 이 민족독립선언서는 낭독되고 또 낭독
되고, 되풀이해서 낭독되었는가(呪文의 핵심은 ‘되풀이’해서 외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마도
지난 100년 역사상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읽은 글은 이 독립선언서가 아닐까 한다. 그런 점에서
독립선언서는 ‘민족의 헌장’⁶⁵⁾이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이런 ‘집단성’과 ‘되먹임’에 주목하여, 천

62) 『천도교경전』「용담유사」〈안심가〉.

63) 25일, 27일 이틀에 걸쳐 3만 5천 매가 인쇄 배포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앞의 『목암비망록』.

64) 권보드래, 앞의 글, 376-384쪽 발취.

65) ‘민족교육헌장’이라고 해야 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민족의 헌장’이라고 썼다. cf. “겨레의 가슴에 독립

도교 용어로 말하자면, 독립선언서는 주문(呪文)이다. 주문(呪文=한울님을 위하는 글, 布德文)이므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기미년)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다(cf-제2의 독립선언서).⁶⁶⁾ 주문은 비는 글이며, 지극히 한울님(조국)을 위하는 글이다. 우리 민족의 주문이다.

3) 믿고 정성들이는 글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인의 본령은 믿고 정성들이는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정의(正義)와 인도(人道)라는 시대정신으로 현현(顯顯)한 하느님 감응과 천백세 조령(祖靈)의 음우(陰佑)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글이다. 믿음 앞에는 당적(當敵)할 자가 없는 법이다. “우리가 나아가 취하고자 함에 어떠한 강적을 꺾지 못하랴, 우리가 물러나 미래를 가늠함에 어떠한 뜻을 펼치지 못하랴” 한 것이 그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정성들이는 것이다.(1+ 言 = 信 / 言 + 成 = 誠) 책임지기 위하여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이다. 자기의 맹세한 바를 돌이켜 보고, 그 맹세를 안고 나아갈 길을 내다보는 것이다.⁶⁷⁾ 그 믿음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그날 그 자리에서 발휘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途上)에 독립선언서가 있었다. 독립선언서를 통해, 종교인 스스로 자기 믿음을 믿게 되었고, 자기 믿음을 완성하였다.

3.1 운동은 한반도 역사상 문자 언어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했던 순간이다. (중략) 3.1 운동 당시의 언어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텍스트로서, “읽는 것, 다시 읽는 것, 쓰는 것, 다시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변혁하는 힘”임을 증명해 내고 있다.⁶⁸⁾

4) 성찰하고 용서하는 글

丙子修好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였다 하여 日本의 無信을 罪하러 안이 하노라. (중략)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러 안이 하노라. (중략) 今日 吾人の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독립선언서의 주체, 즉 우리 민족은 일본[他]을 죄책(罪責)·원우(怨尤)·징변(懲辯)·파괴(破壞)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吾人]를 책려(策勵)·주무(綱繆)·건설(建設)하며, 자가(自家)의 신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손병희)”

66) 기미년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사장이던 이종일은 만세운동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옥한 후, 기미만세운동 3주년이 되는 1922년 3월 1일, 보성사 직원들과 함께 제2의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그때 낭독할 <자주독립선언문> 초고를 2월 20일에 직접 작성, 김홍규 선생에게 인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탄로나 실패하고 말았다. 1910~1945년 사이 국내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밝혀진 것만 103종에 이른다.

67) 『천도교경전』 『동경대전』 <논학문>, “대저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되느니라. (중략) 먼저 믿고 뒤에 정성하라. 내 지금 밝게 가르치니 어찌 미더운 말이 아니겠는가. 공경하고 정성들여 가르치는 말을 어기지 말지어다.”

68) 권보드래, 앞의 글, 396-397쪽.

운명(新運命)을 개척할 뿐 타(他)를 질척배척(嫉逐排斥)하지 아니하며, 일본의 착오 상태를 개선 광정하여 바르고 큰 새 세상[正經大原]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선도(先導)하는 것이 목적이다.⁶⁹⁾

종교인의 신앙행위의 출발점은 참회(懺悔)이다. 천도교에서 수도(修道)하는 것도 참회문을 낭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기독교나 불교에서 참회나 세속으로부터의 거리두기도 바로 자기 성찰을 위한 장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립선언서는 용서하는 글이다. 용서는 참회와 표리(表裏)를 이룬다.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스스로 용서 받(고자 하)는 글이며, 타인을 구원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글이다.⁷⁰⁾ 그런 한에서 용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일”이다. 공자님이 말씀하신바 죽을 때까지[終身]토록 행할 만한 것이다.⁷¹⁾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신약성서』의 황금률이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자체로 ‘종교적’이다.

5) 서로 살리는 유무상자(有無相資)의 글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없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績을 觀하라. (중략) 友好的 新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중략) 今日 吾人の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여금 正當한 生榮을 遂게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出하여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여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세계를 구제하는 것은 모든 종교인의 사명이다. 독립선언서는 자주(自主)로서 자립(自立)하고 자생(自生)하여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 세계를 두루 살리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길을 제시한다. 동학-천도교로 말하면 보국안민과 제인질병(濟人疾病)이요, 유무상자(有無相資-相生)⁷²⁾이다. 기독교나 불교에서 구원과 구제가 그것이다. 인(仁)과 사랑[愛], 자비(慈悲)의 근본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독립선언서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살림의 종교인 윤리이다. 우호적 신국면(新局面)을 열어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르는[遠禍召福]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조선인의 생영(生榮), 일본과 중국[支那]의 공영(共榮),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나아가 생명평화의 신천지(新天地)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유무상자는 운동의 정신이며 원리이자, 방법론이기도 하다. 독립만세 전개 과정에서 의암선생의 결단으로 기독교에 운동자금 5천원을 교부한 것도 바로 이 ‘유무상자’의 실천이다.⁷³⁾

69) 『천도교경전』「동경대전」〈탄도유심금(嘆道儒心急)〉, “남의 작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작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他人細過 勿論我心 我心小慧 以施於人).”

70)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1) 『論語』「衛靈公」, “자공이 물기를, ‘한마디 말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서(恕)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72) 유무상자(有無相資)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相)’의 생명(生命)됨을 완성한다”는 뜻이다. 유무상통, 환난상휼, ‘불우이웃-끼리돕기’의 뜻도 들어 있다.

6) 꿈(希望·祈願)의 기록

모든 종교의 성자(聖者)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과 만물을 꿈꾸는 이들이었다. 그 성자(聖者)들의 꿈을 좇는 사람들이 모여 종교를 이루었다. 종교를 한다는 것(신앙)은 그분들의 꿈을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종교적인 행위는 꿈꾸는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꿈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3.1운동은 꿈꾸는 자들의 향연이었다. 그리고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왔다. 꿈을 선언하는 한에 있어, 독립선언서는 승리의 헌장이다. 왜냐하면, 패자가 과거를 자랑하는 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승자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승자의 모습을 훗날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은 여실히 보여준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중략)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중략)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김구, 『나의 소원』)

이것이 꿈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이 국조단군의 꿈(이상)이기만 하겠는가. 인의(공자님), 자비(부처님), 사랑(예수님)의 꿈도 이것이다.

독립선언서는 꿈꾸는 자들의 함성이었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的 精神이 巴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독립선언서는 꿈을 믿은 자들의 몸짓이었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 도다. (중략)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 | 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躊躇할 것 없으며, 아모 忌憚할 것 업도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독립선언서를 살펴보는 일은 독립선언서를 베고 누워서, 다시 꿈꾸는 일이다. 꿈같은 일이며, 꿈같은 글이 되기를 바라며 쓰는 글이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만물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독립선언서를 다시 읽고, 스스로 선언서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가는 목적이며, 방법이며, 유일한 가치이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주어져 있으나,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제대로

73) 이병헌. 앞의 글. “운동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대부분의 경비는 천도교에서 부담해 왔지만 거사 후 33인의 가족생활비도 주로 천도교에서 맡게 되었다. 기독교 측은 함태영 선생이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그 자신도 체포될 것을 각오하여 천도교 중앙총부 직원이었던 필자에게 2개월분을 미리 맡기면서 ‘내가 투옥된 후에는 군이 맡아 지불하라.’고 하였다. (중략) 그러나 필자도 미구(未久)에 수감됨으로써 이러한 지불이 정지되었다가 공판 때부터 다시 전일 미불액까지 합쳐서 모두 지불한 일도 있다.”

알지 못하고·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보아 내고, 새롭게 알아가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 고자 한다. 꿈꾸는 자는 달을 본다. 꿈꾸는 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역사적 사실·논거·사료) 을 보지만, 금세 눈을 돌려, 그것이 가리키는 달을 본다.

꿈꾸는 자는 달을 보며 님을 그리워한다. 꿈꾸는 자는 달을 보며 빈다. 빌고 빈다. 빌고 빌다 가, 달이 되어 버린다. 한울님,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대신사님 모두 달님이고 하늘님(해님)이 다. 꿈꾸는 자는 위험하다. 세상에 대하여 위험하고 불온하며, 스스로에게도 위험하다.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가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억눌린 자'였기 때문이다. "하느님, 하느 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쳐 본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에 의 의지와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7) 순교의 서(書)이며, 부활의 약속(約束)

의암 손병희 선생은 1919년 2월 28일자로 천도교의 대도주(大道主)인 춘암 박인호(朴寅浩, 天道教 4世 大道主-민족대표 48인 중 1인)에게 <유시문(諭示文)>⁷⁴⁾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는 세계적인 기운에 편승하여 정치적인 운동(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니, 이 미 10년 전에 도통(道統)을 물려준 대로, 종단의 명맥(命脈)을 계속 보존(保存)하고 앞으로 나아가 라"는 당부이다.

즉, 당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니, 오만년 이어갈 천도교의 일은 춘암(박 인호)가 책임을 지고 맡아 나아가라는 당부이다. 이 글은 실질적인 유서(遺書)였다.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의 한분인 이갑성 목사는 기독교 측 민족대표를 정할 때에 70여 명이나 되는 당시의 직간접 실무자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면 '필경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에게 어떤 극한 일을 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서로 "죽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바람 에 애를 먹었다. 결국 1회, 2회, 3회로 나누어 차례로 사형대로 나아가기로 하였는데, 이갑성 선 생은 다른 일 때문에 다음 기회에 참여기로 하였으나 기다릴 수 없어서 첫 번째 기회에 서명기로 결심하였다고 증언한다.⁷⁵⁾

독립선언서가 좋은 글인 까닭은 그것이 꿈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순교의 서이며, 부활의 약속 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좋은 글인 까닭도, 불경이 좋은 글인 까닭도, 동학의 경전이 좋은 글인 까 닭도, 그것이 꿈의 기록이며, 순교의 서이며, 부활(장생, 영행, 해탈)의 기록이기 때문 아닌가.

1919년의 한반도뿐이라, 중국대륙에서, 만주벌판에서 독립만세 이전과 이후, 해방의 그날까지 순교한 모든 분들은 모두 독립선언서 안에서 부활한다·할 것이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독립선언서는 좋은 글이며·좋은 글일 것이며·좋은 글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하고 싶은 일·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⁷⁶⁾

74) 앞의 『의암손병희선생전기』, 356쪽, <유시문(諭示文)>.

75) 이갑성, <3.1운동 54주년기념회고담>, 창천교회 1973년 3.1절 기념예배(3.1운동100주년기념총람 재수록분).

76)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2.8독립선언서'와 '무오독립선언서'도 '기미독립선언서'와의 '차별성'보다 '동질성'에 주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비교작업은 후일을 기약한다. cf. 정태욱, 「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의 법사상」, 한국

8)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생명의 서(書)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미국에까지 전파하는 것은 이미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단계에서부터 기획된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내의 한인들도 국내의 만세 운동 소식을 구미 각국의 정계와 시민 사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중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한 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의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 1919년 4월 24일자와 26일자에는 그해 4월 6일자 『LA타임즈』 사설로 게재된 독립선언서의 내용 소개를 2회에 걸쳐 전재(轉載)하였다.⁷⁷⁾

이 사설의 제목은 ‘생명(生命)의 존귀(尊貴).’ 사설은 “‘현금(現今) 손병희 씨와 다른 한인들이 선고(宣告)한 한국독립선언서’의 글 가운데서 ‘생명의 존귀’라는 말을 찾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이 독립선언서(한국독립선언서)가 우리 아메리카 독립선언서보다도, 또 캘리포니아(비어플릭) 전쟁시대에 윌리엄 아디가 저술한 캘리포니아 독립선언서보다 더 한층 높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만일 시 세계의 모든 문명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이 세 독립선언서만 남겨 둔다 칠 것 같으면, 이 세계 인류가 오히려 그 인류를 지도할 만한 계명(모세 씨의 십계명과 같은)이 될 만하”다고 평가한다. 이어 한인(韓人)의 독립선언서 그 셋 가운데서도 “최고등의 고상하고 탁월한 인류의 정신이 인류의 사상과 희망에 적합한 것이 언사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들(LA타임즈 독자들)이 이것을 연구하여 보면, “이것이 창이나 총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이상(理想)을 발표하는 데서 된 것이며 흑암(黑暗) 무지(無知)한 산곡(山谷)에 앉은 시대를 지나 광명한 높은 산상에 올라선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흑암하고 희망이 없던 혼돈 시대에 살았”던바, ‘생명의 존귀란 말’을 잃어 버렸으나, “현금 유럽과 아시아가 그네들의 생명을 티끌 속에 파묻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생명! 이 말 한마디 가운데 이 세상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생명만 있고 존귀가 없으면” “사람의 존귀가 없는 생명을 중히 여기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수천년 이전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존귀’를 위하여 경쟁하여 왔다”고 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한국의 손병희 씨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악한 세상에 (스스로 악을 제거할-인용자) 능력을 주시사 그 말을 듣게 하실는지”라고 이야기한다. (중략) 이어서 “이 세계를 옳고 정의롭게 만들기가 지극히 어려운 일이나, 이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성공을 얻기 위하여 한국이 그 생명의 존귀를 위하여 큰 목소리를 우리를 부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마다 생명의 존귀는 누가 공격치 모하는 것으로 인증(認證)할 것 같으면 다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십자가로만 할 것이 아니요, 온 세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손병희 씨가 부르는 소리를 들읍시다! 이는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외다!”라고 하였다.

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4권 제3호, 2011. 13쪽.

77) 『신한민보(新韓民報)』(『3.1운동100주년 공동자료집』(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7, 55-58쪽 참조)

5. 독립선언서는 한민족의 대헌장(大憲章)⁷⁸⁾이다

1) 오래된 미래의 비결

독립선언서는 기도문이자 비는 글이므로 그 안에는 당연히 ‘바라는 바’가 들어 있다. 자주, 독립, 정의, 인도, 평화 등도 그중 핵심적인 주제어이기도 하지만, 전일(全一)적인 관점에서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의 천지(天志·天智)가 빚어 놓은 비결(秘訣)로서 그 속에서 우리 민족과 인류의 미래 비전(秘典)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은 우리 민족 전체를 통틀어 아마도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되풀이되어 읽고 공감한 글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의 헌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헌장에는 우리 민족의 비전이 들어 있다. 이미 3.1운동 80주년을 앞둔 1999년 전후로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새천년에 우리 민족과 인류 사회에 귀감이 될 정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때 독립선언서에서 ‘미래지향적인 삼일정신’으로 일곱 가지를 발견하였다. 필자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삼일정신⁷⁹⁾을 가능케 한 근본 동력이 바로 종교적인 상상력 내지 낭만성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믿는다.

첫째, 독립선언서는 자유와 평등, 평화와 행복의 새로운 인류 사회를 제시하였다. 자유와 평등, 평화와 행복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신(神)이 인간에게 약속한 복락(福樂)이다. 동서고금의 무수한 경전(經典)에서 거듭거듭 교화(教化)하고 교훈(教訓)하고 교양(教養)하는 덕목이 바로 자유와 평등, 평화와 행복이다. 이것을 세계 개조, 민족 자결의 기운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종교) 안에 있던 것을 세속 세계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발견이자, 그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지, 종교인들이 세속으로부터 계발(啓發)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 미래(未來-아직 오지 않음)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였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던 당시는 ‘침략주의, 강권주의’가 득세하던 때였다. 민족자결주의가 선포되기는 하였으나, 우리 민족, 특히 민족대표들은 그것은 강대국 중심의 나눠먹기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의 주체들은 도의(道義)가 펼쳐지는 신천지를 예상(豫想)하였고, 인도적 새 문명을 예기(豫期)하였고, 생명(生命)의 잔치(繁榮)가 벌어지는 새 봄을 예감(豫感)하였다. 최악의 상황에도 믿음과 신념을 버리거나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정신, 다시 말하면 ‘미래를 개척하는 불굴의 정신(84쪽)’이다. 미래지향성과 개척정신이야말로 종교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여기’에서 현현(顯顯)되는 것을 믿는 것이다(地上天國-佛國土).

셋째, “독립선언서는 글로벌 사상이 그 기반이다.”(84쪽) 3.1운동 당시만 해도 지구촌을 지배하던 주류 이데올로기는 약육강식, 적자생존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의 정당한 생존’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양의 지지자로서의 중책을 감당하게 하

78) 독립선언서는 일찍부터 ‘최고유일의 대헌장’(설의식, <동아일보> 1946.2.26.) ‘민족자존의 대헌장’(사설, <동아일보> 1946.2.28.)이라고 호명되었다.

79) 하인호, 『미래를 읽는 9가지 방법』, 일송북, 2008, 77-97쪽.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하는 대목은 괄호 안에 쪽수를 표시함.

며 ‘중국에게 안녕을 제공하고’ ‘동양평화’와 ‘세계평화’까지를 기약(期約)하고 기대(期待)하고 기필(期必)하는 것이 독립선언서이다. 종교적인 견지에서 볼 때 ‘글로벌’은 단지 ‘지구촌’ 차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지구 안의 모든 족속(族屬) 민족, 국가, 공동체, 인간-생물)은 물론이고 무생물(사물)⁸⁰⁾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다.

넷째, “독립선언서는 21세기 사회의 경쟁원리를 (중략) 즉 윈윈(win-win)게임의 원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세계사에 길이 빛날 업적임에 틀림없다.”(86쪽) 이것은 단순한 구두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창성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세계와 인류사회, 그리고 생명세계 전반에 기여보비(寄與補裨)할 수 있는 덕목이다. 상생(相生)의 덕목 또한 이 세상만물이 모두 나와 한 동포(同胞; 한배에서 나온 형제자매)라는 인오동포(人吾同胞), 물오동포(物吾同胞)의 동귀일체(同歸一體) 사상⁸¹⁾, 하나님의 한 자손(형제님, 자매님)임을 기반으로 한다.

다섯째, “독립선언서는 전체적으로 이성(理性)이나 지성(知性)보다는 감성(感性)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중략) 21세기 사회는 바로 감성중심의 사회이다.”(88쪽) 여기서 감성은 공감능력(共感能力)으로 표현된다. 이는 ‘세계개조의 대기운’을 읽고, 우리 민족이 처한 주관적 객관적 실상을 낱알이 드러내며, 일본-중국까지 아울러 그 처지를 광정(匡正)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선생은 공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내 마음(한울님 마음)이 곧 네 마음(수운-인간)의 마음이니라(吾心卽汝心)”라는 천어(天語)를 들었다. 여기서는 한울님-인간(수운)만이 아니라, 귀신(鬼神)까지 아울러 공감하고 공존하는 이치를 설파한다.⁸²⁾

여섯째, 독립선언서는 “21세기 지식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92쪽)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기건설(自己建設)과 자기운명개척(自己運命開拓), 자기생명번영(自己生命繁榮)으로서의 “자기실현”의 정신,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민족문화의 창달”, “새로운 세계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그리고 뉴 에이지 시대의 도래로서의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 위치는’(천도교경전과 성경에 공통되는 말) 뉴 에이지(New age)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다.

일곱째, “독립선언서는 21세기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95쪽) 참여민주주의의 덕성(德性)을 가장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 바로 공약삼장(公約三章)이다. “제1장의 ‘배타적 감정의 배제’하고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여 참여하기, 제2장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참여하기, 제3장 ‘질서를 존중’하고 ‘광명정대’하게 참여하기”의 정신이야말로 지난 100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면면히 살아서 계승되어 왔고, 가장 최근의 촛불혁명에서 생생하게 재현된 바 있다. 이러한 참여정신은 종교인의 기초덕목이자 근본덕목인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구현에 다름 아니다.⁸³⁾

80) 『천도교경전』『해월신사법설』〈삼경(三敬-敬天, 敬人, 敬物)〉, “셋째는 물건을 공경함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 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

81) 『천도교경전』『해월신사법설』〈삼경〉, “사람은 (중략) 敬天함으로써 人吾同胞 物吾同胞의 全的理諦를 깨달을 것이요 (중략) 敬天은 모든 眞理의 中樞를 把持함이니라.”

82) 『천도교경전』『동경대전』〈논학문〉,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오. 천지는 알라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83) 70,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종교계가 앞장을 서거나 87년 민주항쟁 당시 명동성당이나 성공회 성당 등 종교 기관이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된 것은 국민들의 종교·종교계·종교인에 대한 기억-3.1운동 당시에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던-

이 참여민주주의는 '자주'(自主)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바, 대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자주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자주, 관과 민 사이의 자주, 남녀노소 사이의 자주를 포함한 '자치정신(自治精神)'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치정신 또한 동학-천도교의 '포접제(包接制)'에서부터 기원하여 '집강소(執綱所)'로 면면히 이어져 온 것에 다름 아니다.

2) 영성적 · 개혁적 · 자주적 근대 운동 출사표

1900년대 초 천도교의 신지식인(新知識人) 중의 한 사람인 오상준(吳尙俊)은 1907년 『초등교서(初等敎書)』라는 '교과서'적인 서적을 펴냈다. 이 책에는 모두 28개 장에 걸쳐 근대국가 체재(體裁)와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덕목(德目)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립'이라는 단어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 우리나라의 독립이 위협(탈취)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대)독립 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공화제(共和制)에 대한 이해와 전파가 상당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동학-천도교 운동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보국안민-다시개혁으로서의 영성적 근대의 추구, 개화(改化) 아닌 개혁(開闢)으로서의 자생적 · 토착적 근대의 추구, 침략주의-강권주의의 서구적 근대에 대한 저항적 근대로서의 자주적 근대의 추구가 1910년대 직전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전거(典據)이다.⁸⁴⁾

영성적 근대운동으로서의 3.1운동의 현대적 의미는 '영혼의 탈식민지화'⁸⁵⁾ 담론으로 계승되고 있고, 개혁적 근대운동으로서의 3.1운동의 현대적 의미는 '토착적 근대화' 담론으로 계승⁸⁶⁾되고 있으며, 자주적 근대운동으로 3.1운동의 현대적 의미는 '3.1운동의 완성으로서의 통일운동론'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영성적 근대' '개혁적 근대' '자주적 근대'로서의 3.1운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3.1운동이 세계사적 · 문명사적 · 개혁적 지평의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일이다.⁸⁷⁾

을 소환하여 민주화운동이 운동권의 운동이 아니라 범국민(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것은 모두 3.1운동의 역사적 · 종교적 계승이다.

84) 이 책은 읽기 쉬운 형태로 곧 재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1910년대 이전의 '영성적 근대' '개혁적 근대' '자주적 근대'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공부한다면 "식민지근대화론"은 터무니없는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5) 김태창(金泰昶)-후카오 요코(深尾葉子, 오사카대학 준교수) 대담, 「영혼의 탈식민지화:탈영토화와 미래공창(未來共創)」, 『개혁신문』 제65호, 2017년 7월호, 9-16쪽; 또 다른 장소에서, 최진석 교수는 최근의 연작(단행본과 건명원)에서 일관되게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진석, 『탁월한 사유의 시선』, 21세기북스, 2018.

86) 학술대회 <근대 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2018년 8월 14일-15일, 원불교사상연구원 주최); 조성환, 「한국은 '어떤 근대'를 추구하였나?」, 『개혁신문』 제77호, 2018년 8월호, 28-29쪽.

87) <1919년의 세계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평화 연구' 필요>, 《한겨레신문》 2018.09.13.(다음뉴스).

III. 나가는 말

1. 3.1운동 100년 - 서세동점 100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는 공식수행원 14명과 특별수행원 52명이 참석하였다. 그중 종교계 특별수행원으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의 수장(대리) 네 분이 참여하였다. 한반도 위에서, 3.1운동의 현재적 재현이라고 하는 민족통일의 도상(途上)의 중대한 자리에 천도교의 수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 사실에 주목한 남측의 종교계 내부에 ‘뜻있는(?)’은 인사들 중 일부는 설왕설래하고, 개탄과 우려를 넘어 분개(憤慨)하는 분들까지도 있었다. 천도교단 내부 일각에서도 이를 두고 통분(痛忿)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번 사건은 천도교인에게 새삼스런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첫째, “역사는 흐른다”는 것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척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3.1운동의 ‘다시 개벽’으로서의 의의, 새로운 문명세계 구축, 종교적 이상세계로서의 한반도를 향한 이정표를 삼기 위해서는 사실 3.1운동을 전 교단적 차원의 역사적 성과로 여기는 천도교단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천도교단의 역량(교세)은 이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정부(청와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유의미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1운동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왜곡보다 더 결정적인 역사 왜곡이 3.1운동 100주년을 전후로 하여 부지불식간에 전개되고 있다는 의심과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다.

둘째로, 3.1운동의 성과로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만주를 비롯한 중국 일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의 독립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고, 마침내 1945년 광복을 성취하였다. 우리는 3.1운동의 성과로 건국하였음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정작 ‘기미독립선언서’의 근본정신이 온전히 ‘대한민국정부’로 승계되고, 또 6.25 이후의 민주화운동 속에서 오늘날까지 유류(流淚) 없이 구현되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해방(1945.8.15.) 이후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은 분단의 고착화와 서구화, 물질문명의 득세, 종교의 타락, 외세 의존적 근대화(신자유주의의 득세)의 길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살을 주고 뼈를 얻고자’ 하였는데, 실제로는 ‘살을 얻은 대신 피와 뼈, 그리고 영혼까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의 남과 북은 주변강대국의 입김과 서구적 근대문명(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그 언저리에서의 ‘통일’이라도 선취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태가 바로 이번 방북에서 천도교의 탈락한 사건의 의미가 아닌가.⁸⁸⁾ 다시 말해, 1860-1919년까지 한 갑자(60년)의

88) 이 단락은 ‘비관론적’으로 냈두리하듯 쓴 대목이지만, 이러한 역사인식 내지는 비관론을 뒤집어 우리 역사와 근대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자는 연구와 노력이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무게중심으로 “‘개화(서구적 근대)’에서 ‘개벽(자생적·토착적 근대)’으로” 전환하는 것, 동학-중산도-천도교-대종교-원불교 등 일련의 종교적·사상적·철학적 움직임을 “개벽종교”라는 틀로 묶어서, 다시개벽(영성적 근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러한 다시개벽의 주체세력을 ‘개화파’ ‘척사파’에 대하여 “개벽파”라고 호칭하자는 것 등이 이런 연구, 노력의 성과들이다.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개화에서 개벽으로』,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8.11. 및 『개벽신문』 참조.

시기가 서세동점의 쓰나미에 휩쓸린 시기라면, 1920-2019년까지 한 세기(100년) 세월은 그 ‘서세 동점’에 무뎠어 가며 스스로 체화(體化)해 간 영혼의 식민지 시대가 아니었는가.⁸⁹⁾

이것이 진실의 한 모습이라면, 천도교는 가장 아래에 있기에,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쇠락을 경험 하였기에, 그 모습이 잘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 당시의 천도교의 모습과 오늘날의 천도교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불효한 이내 마음, 비감회심 절로난다.”⁹⁰⁾ 여기서 불효란 천명(天命)을 따르지 못한, 즉 한울님[天地父母]에 대한 불효, 사명(師命)을 일일이 어겨 가며 살아 온, 즉 스승님에 대한 불효, 그리고 (遺業)을 계승하지 못한, 즉 선열에 대한 불효의 심정이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당연히 ‘보국안민-다시개벽’ 운동의 형해화(形骸化)를 자초하고, 방지하지 못한 천도교에 절대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3.1운동-100주년과 관련하여 선행해야 할 과업으로서, 종교인의 감수성으로 3.1운동의 의의를 재조명(‘종교운동’)하고 그 정신을 관(觀-‘독립선언서-기도문’)하며, 그 안에 녹아 있는 ‘다시개벽의 꿈’을 조명해 보았다.

2. 게임체인저의 소명

종교인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명백히 그런 것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믿어야만 믿을 수 있는 멀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까지를 믿는 사람이다. 그 진리와 진심과 진정의 세계에 몰입하는 사람이다.

이 글은 “3.1운동 100주년에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문명 세계를 이룩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 물음을 던진 2018년은 ‘전 지구적 파멸을 예감케 하는’ 위기감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실감하는 첫 해였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 100주년 이후 우리가 한울님(하느님, 부처님)께 갈구하는 문명세계 - 신천지(新天地)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본래의 ‘조화로움’을 회복한 세계일 터이다. 그 조화로움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의한 천(天)-지(地)의 훼손이 더 이상 없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상처들도 온전히 치유(治癒)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 터이다.

하늘-땅-사람의 조화로움의 회복은 한울님과-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오와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포함한다. 3.1운동의 현재적 계승의 직접적인 과제인 ‘민족의 평화통일’도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

게임체인저란 ‘일의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사람이나 발명품(cf.아이폰)’을 뜻한다.

89)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14일에는 서울 시내에 3개 코스에 걸쳐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로마 교황청이 승인한 일을 두고 이를 기념하고 공식화하는 선포식이 서소문역사공원 공사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서소문역사공원’은 현재 수조원(부지포함)의 공사비를 들여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로 조성되고 있다(공식 명칭은 ‘서소문역사공원’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천주교성지순례공원이다). 이곳 서소문은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들이 처형되거나 그 수급이 효시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 내내 개혁적 운동가들이 참형된 명실상부한 ‘한국개혁운동사’의 현장이다. 그런데 그곳에 교황이 다녀가고, 결국은 민관(천주교단-중구청 등)이 협력하여 ‘천주교 성지’로 거듭나는 중이다. 그 자리에서 1년여에 걸친 천막농성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톨릭 순교성지화 반대’를 외쳐온 천도교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힘없이 쫓고라든 동학-천도교의 현실을 여실히 절감하는 현장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단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90) 『천도교경전』「용담유사」〈용담가〉.

지금 여기에 한울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명(召命)의 과제는 바로 게임체인저이다. 우리는 그 게임체인저가 될 것인가(선택), 될 수 있을 것인가(가능).

생각해 보면 우리(종교개혁연대-3.1운동 100주년 기념 제2독립선언서)의 위상은 기미년 당시의 민족대표나 종교인들의 역량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게다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종교계에 대한 세간의 시선과 인식도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이 세계에서 감당하는 ‘존재감’이 10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변하였다.

이런 주관적,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제2의 독립선언서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내놓은 결과물은 한갓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이 구두선에 그치는 것(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이 세계가 온전히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 세계의 형편(물질만능주의, 기상 이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등, 게다가 종교계 일반의 타락과 탈기(脫氣) 등)를 보면, “안 되면 말고”라고 호기롭게 대처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이때 게임체인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게임체인저가 되는 길은 이야기를 새롭게 쓰는 것이다.”⁹¹⁾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이되, ‘새롭게 쓴 이야기’는 미래의 역사이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새롭게 쓴다는 것은 그것이 과거 이야기를 새롭게 쓰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발견과 발명이 다른 것은, 발견은 아무리 해도 과거의 틀(팩트)에 구애된 채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발명이란 그 틀마저도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와 있기를 바랐던 역사, 있었으면 좋았을 역사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그중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만 얽매어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발명이 시작된다.

서세동점의 끝물이다. 서구적 근대의 말세이다. 동과 서는 비로소 재균형을 찾아가고, 구대륙과 신대륙의 위상 또한 전변한다. 이웃나라는 ‘신시대’라고 한다. 우리 식으로는 ‘(다시) 개혁’이다. 만인과 만국과 만물이 연결되는 개혁의 새벽을 예감한다. 모심과 섬김과 살림의 원리를 깊이 긴히 천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백년, 개화파가 주류였다. 민주화 세대 또한 진보/보수, 좌/우로 갈리었으되, 개화파의 후예이기는 매한가지였다. 20세기, ‘구시대의 막내’였던 것이다. 21세기, 다른 백년으로 진입했건만 여태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철지난 길항이 지루하다. 적체이자 적폐이다. 백년간 고독했던 ‘개혁파’를 다시 호출해야 할 시점이다. 3.1 운동 일백주년, 2019년이 적기이다.⁹²⁾

바라건대, 우리가 쓰려고 하는 ‘제2의 독립선언서’가 그 ‘새롭게 쓴 이야기’에 값하기를!

3. 다시, 다시개혁의 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할 제2독립선언서⁹³⁾의 요건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91) 데이비드 코튼 지음, 앞의 책, “이야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12쪽).”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다(217쪽).”

92) 이병한, <추천사>, 조성환, 앞의 책. 표4.

첫째, 순교-부활의 본성을 회복하여 시민/인민을 생명 세계로 인도할 길을 찾아야 한다.
둘째,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문명세계, 생명세계에 대한 비전을 찾아야 한다.
셋째, 탈종교 시대에 걸맞은 종교(인)의 자기 정화와 구원-신인합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넷째, 인간-인간의 평화, 인간-자연의 상생, 생명-우주의 다시개벽의 기도를 찾아야 한다.

2019년은 “세상의 모든 전쟁은 종교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을 뒤집어 “세상의 모든 평화와 새로움과 문명은 종교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다시개벽의 꿈이다.”라는 말이 역사책에 기록되는 원년이 되기를 심고한다.

93) 최근 들어 씌어진 '제2의 독립선언서' 중 3.1운동 80주년에 '종교지도자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제2 독립선언서'와 '한살림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자는 '한살림선언'이야말로 이 시대 '독립선언서-독립통일평화생명문명'라고 생각한다. 100주년의 제2독립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서와 비슷한 '3천 자' 내외의 '선언서'와 그 10배쯤, 3만 자 내외의 '선언서해제-생명선언' 형태의 해설문서로 2원화하여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